

# 광주 주말 촛불집회 긴장 고조

## 6·10 이후 최대 규모 예상... 검찰청 행진 계획 충돌 우려

오는 5일 광주에서 시민단체와 종교, 노동, 여성, 장애인, 농민단체 등이 대규모 촛불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집회는 6·10 촛불집회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촛불집회 후에는 공안정국 조성에 항의하는 의미로 광주지방검찰청까지 행진이 계획되어 있어 경찰과의 충돌도 예상된다.

▷시국회의 최대 촛불집회 예고= 광주·전남지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반대 광주·전남비상시국회의'(비상시국회의)는 오는 5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10만명이 참여하는 '7·5 국민승리의 날' 촛불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비상시국회의 소속 단체들과 시민은 물론 노동계, 장애인, 농민 등 각계각층이 참가할 것으로 보여 6·10 촛불집회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시국회의 대표단은 3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민주의 종각에서 광주지방검찰청까지 7보 1배 행진을 한 뒤, 공안정국 중단과 시민들의 촛불집회 참가를 촉구했다.

▷도심 곳곳에서 사전집회 열려= 비상시국회의는 5일 오후 5시 광우역에서 네티즌과 학생, 여성, 장애인, 종교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사전집회를 열고, 금남로까지 평화행진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도 이날 광

주지방노동청 앞에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촛불집회까지 행진을 벌인다. 민주노총은 조합원 1만명 참가를 목표로 참가를 독려하고 있다.

또 광주 불교 사암연합회는 이날 오후 6시 금남로 민주의 종각 앞에서 시국법회를 열고 공안정국 중단과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광주·전남 농민연대도 이날 오후 2시 무안군 삼향면 전남도청 앞에서 '쇠고기 협상무효, 농민생존권 보장' 기자회견을 갖고 도청에 농기계 10여대를 반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청 행진, 충돌 우려=비상시국회의는 5일 밤 촛불집회가 끝난 뒤 촛불집회 탄압에 항의하는 의미로 광주지검 청사까지 행진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도 서울 경찰의 촛불시위대 강경진압과 대책위 사무실 압수수색 등에 항의하며, 촛불집회 참가자 100여명이 광주지검을 항의방문한 적은 있지만 5일 상황은 다르다. 최소한 수천여명이 행진에 참가할 것으로 보이고, 전국적으로 대책위 관계자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강경진압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광주에서는 평화집회가 이어지고 있어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 촛불집회가 폭력성을 띠 경우 엄정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기자 ahj@kwangju.co.kr



광주·전남 비상시국회의 대표단과 기독교 대표 등 50여명은 3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민주의 종각에서 광주지검 청사까지 '7·5 국민 승리의 날' 성사 염원 7보 1배 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촛불집회 강경진압 중단을 촉구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미 쇠고기 불매운동 본격화

## 시민단체들 선포식

'광우병 대책 및 식품안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와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전국여성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미국산 쇠고기 유통저지 및 불매운동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대안 국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안전과 검증장치가 없이 수입업자와 상인들에게 미국산 쇠고기의 판매를 허용했다"며 "허울뿐인 이력추적제와 원산지 표시제로 국민 밥상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전면 재협상이 될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의 감시와 유통저지, 불매운동을 위한 광우병 안전지대(프리존) 선언운동을 벌일 계획"이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식육·요업 사업자, 유통업자 등은 공동체를 지켜내는 마음으로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들 단체는 ▲대형마트와 도매유통업자의 미 쇠고기 판매거부 공개선언 ▲중소 식육업자와 요식업자 미 쇠고기 불매 자정결의 ▲의료·교육 기관 광우병 안전·예방 교육프로그램 마련 등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 광주 민변도 재협상 촉구

민주시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 전남지부(이하 광주전남 민변)도 미 수입업자와 상인들에게 미국산 쇠고기의 판매를 허용했다"며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촛불집회 강경진압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전남 민변은 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는 촛불집회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려는 이명박 정부의 독선적인 정책집행 태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며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촛불집회 강경진압 방침을 철회하고 미국과 쇠고기 수입 재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연합기자 ahj@

# 여수시의원, 공무원 폭행 논란

## 공무원 "마구 때렸다" 시의원은 "기억 없다"

여수시의원이 노래방에서 공무원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여수경찰서 관계자는 3일 "여수시의회 정보의원이 지난 2일 밤 10시30분경 화장실 G 노래방에서 여수시 공무원인 민모(51·5급)씨의 뺨을 때리고 다리를 걷어차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대가 파열돼 갑수를 한 상태인 민씨는 "어제 저녁 김모 의원이 노래방으로 오라고해 노래방에 갔더니 김

의원과 함께 있던 정 의원이 수박갑질을 얼굴에 던지고 손과 발로 나를 수차례 때려 노래방에서 나와버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어제 비도 오고 해서 술을 많이 먹었는데 그 사람이 (민씨)우리 (술)자리로 왔다고 하는데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공무원노조는 3일 성명을 내고 "시의원이 노래방에서 음주를 하며 시정 과장을 불러내 모욕적인 폭언과 폭력을 휘둘렀다는 언론 보도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사기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박영규기자 ykpark@

# 광주 올 첫 비브리오 패혈증균 검출

광주지역의 꼬막과 바지락에서 올들어 처음으로 비브리오 패혈증균(Vibrio vulnificus)이 검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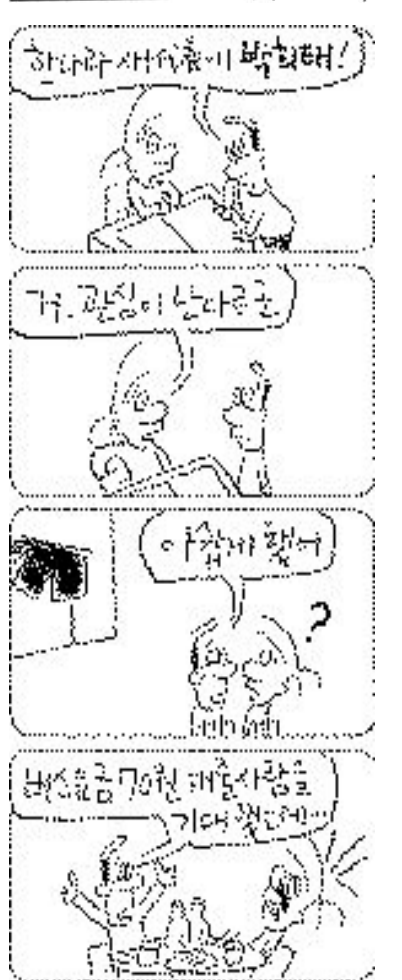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3일 "지난달 말 광주지역 대형 횡단점과 시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어패류와 수족관물물 대상을 비브리오 패혈증균을 검사한 결과 꼬막과 바지락 등 2건에서 비브리오 패혈증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류와 수

족관물에서는 비브리오 패혈증균이 한 건도 검출되지 않았다.

이번 검사는 각 구청 보건소에서 수거해 의뢰한 어류 9건, 패류 50건, 수족관물 19건 등 모두 78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비브리오 패혈증은 해산물을 날로 섭취하거나 상처난 사람이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했을 때 주로 감염되는 질병이다. /정후식기자 who@

# 니원침 (7547) 김장두



다 좋은 건데...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자막 및 상담관행

▶ 서울본사 : 02) 3445-0943  
▶ 나주공점 : 061) 337-0571

## '파렴치 이웃' 돈 훔치고 신고까지

○이웃집에 놀러가 기초생활수급비를 훔친 뒤 피해자를 대신해 경찰에 범죄 신고까지 한 50대가 경찰서행.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이모(여·51)씨는 지난달 18일 낮 12시 30분경 광주시 북구 두암동 J아파트 202호(여·75)씨의 집에 놀러가 장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안방에 있던 10만원권 수표 2장과 현금 4만원 등 기초생활수급비 24만원을 훔쳐다닌 것.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범행 후 물이 불려난 장씨와 함께 경찰서에 가 절도신고를 하는 대범함까지 보였는데, 경찰에서 "훔친 돈으로 선품기를 사는 등 생활품을 구입하는데 썼다"고 진술.

○경찰은 도난 수표가 발견된 광주 D마트 내에 설치된 CCTV 화면분석을 통해 이씨를 검거.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 "출석명령 심하다... 강경진압 위한 술책"

# '먹물총' 설전

## "경찰 모욕한 것...엄정한 법 집행일 뿐"

먹물이 든 물총 살포를 지시한 30대 남성에 대한 출석명령서 발부를 놓고 경찰과 촛불시위대간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은 "먹물 총을 쏜 것은 경찰을 모욕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시위대측은 "먹물 총을 쏘고 출석명령서를 보낸 것은 강경진압을 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맞서고 있다.

광주북부경찰은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하고 경찰에게 먹물을 쏘도록 집회 참가자들을 유도한 '광우병 위험 광주·전남 비상시국회의' 자원봉사자 김모(31)씨에게 집시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혐의를 적용, 출석명령서를 발송했다. 김씨는 쇠고기 관련 촛불집회 이후 광주에서 출석명령

서가 발부된 첫번째 케이스다.

김씨는 "변호사와 상의해 조사에 응할지 결정하겠다"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두 세차례 더 출석요구를 하고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9일 광주시 북구 중흥동 한나라방광

주·전남 사·도·당사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집회를 선동했으며 초등학생 10여명에게 당사를 지키던 전·의경을 향해 먹물 총을 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상시국회의측은 경찰이 다른 참가자들도 많은데, 유독 한총련의 장을 지냈던 김씨를 지목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비상시국

회의 관계자는 "경찰의 출석요구는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시위권으로 몰아가기 위한 명분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도 "쇠고기 정국 등 현 시국과 맞물려 있는 만큼 여러 정황을 고려해 출석시기를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촛불행진 참가자들이 직원들에게 먹물 총을 쏘도록 한 것은 엄정한 법 집행일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또 "지난달 29일 시위 참가자 중 김씨만 신원이 확인돼 출석요구를 한 것"이라며 "한총련 전 의장을 지냈기 때문에 김씨를 지목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동양의 향연이! HAINAN

무안++하이난(삼아)직항 제주 수.토 4회 한일 ₩899,000~ 8/12, 8/26, 8/29, 8/13 (수, 4회 한일) 4명부터 출발가정 ₩999,000~

무안++장사(장가게)직항 제주 일.토 7회 한일 ₩649,000~ 7/27, 7/31, 8/3, 8/7, 8/10, 8/14, 8/17-8/19 (토.일) 4명부터 출발가정 ₩899,000~

풍요로운 고향길! 가족은 다함께! 장가게

문의: 02-2228-1170